NH투자증권

크레딧

부동산PF 연착륙 시도는 현재 진행형

국내와 해외 모두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축소. 국내 비우호적인 업황 내 기업들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존재. 부동산PF는 정부 주도 연착륙 진행 중으로 정책 지원과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감안할 때 리스크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최성종(크레딧전략)
02)768-7217, seongjong.choi@nhqv.com
김준수(해외 크레딧)
02)768-7784, junsoo.kim@nhqv.com
이세현(크레딧 RA)
02)768-7735, sehyun.lee@nhqv.com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축소, 비우호적 업황 추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축소세 지속. 신용등급 조정이 제한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 회사채는 신용등급 조정에 따른 기업별 상반된 방향성 반영. 지난주 5개 기업의 수요예측서 최초 모집예정금액을 상회하는 자금 모집에 성공

신용평가사들의 상반기 정기평정에서 비우호적인 업황 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있었고, 추가 하향에 대한 우려 지속. 롯데 그룹 주력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롯데지주와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조정. 하반기에도 업황/기업간 차별화 지속 전망

해외 크레딧은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 양호한 경기지표 등으로 미국 하이일드 채권 신용 스프레드 축소 폭이 컸음. 유럽은 신용 스프레드 강보합 속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크레딧 금리도 함께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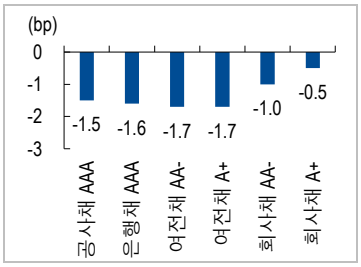
부동산PF 정부 주도 연착륙 진행 중, 정책 지원과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부동산PF 4차 사업성평가 결과 발표되었으며, 구조조정 진행 중. 전체 PF 익스포져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정상사업장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말 대비 11.5조원 감소한 190.8조원. 정리·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중 약 52.7%에 대한 구조조정 상반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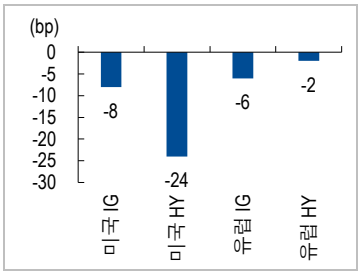
부동산PF 구조조정 대상 여신 증가, 금융권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되고 있으나, 은행과 보험 중심으로 연체율이 낮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 전이는 제한적으로 판단. 일부 제2금융권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도 우호적으로 작용. 부동산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부동산PF 건전성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예정. CP금리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는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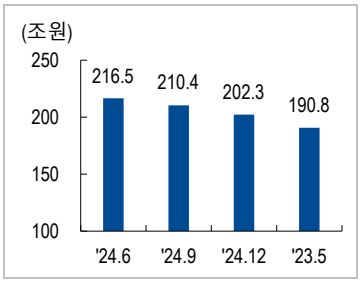
국내 크레딧 주간 신용스프레드 변화



해외 크레딧 주간 신용스프레드 변화



부동산PF 익스포져 추이



C/O/N/T/E/N/T/S

I. 크레딧 시장 주간 동향 3

1.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
2. 해외 크레딧 시장 동향

II. 크레딧 시장 이슈 7

III. Appendix 13

1. 국내 크레딧 주요 지표
2. 해외 크레딧 주요 지표

I. 크레딧 시장 주간 동향

1.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
2. 해외 크레딧 시장 동향

I.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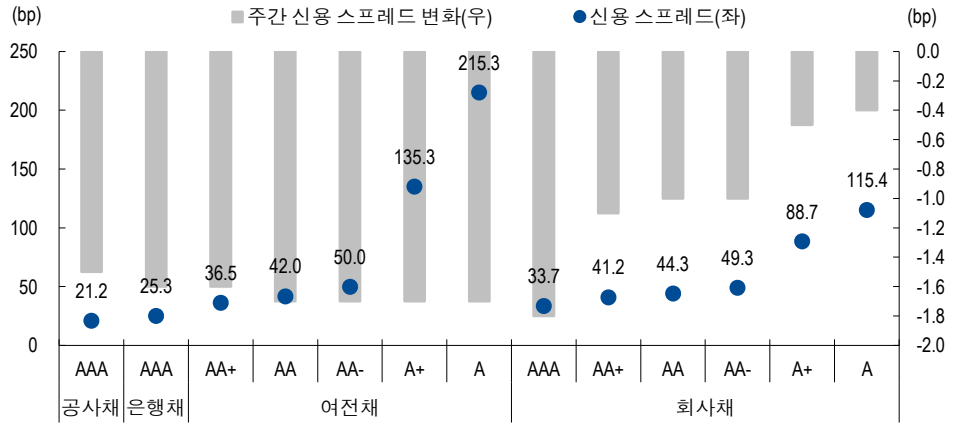
신용 스프레드 축소세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상위등급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소폭 하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 레벨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에서는 여전채가 회사채 대비 신용 스프레드 축소 폭이 컸는데, 이는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주 수요예측을 실시한 5개 기업 모두 최초 모집예정금액을 상회하는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상반기 신용평정 종료, 비우호적인 업황 내 기업 등급 하향 부담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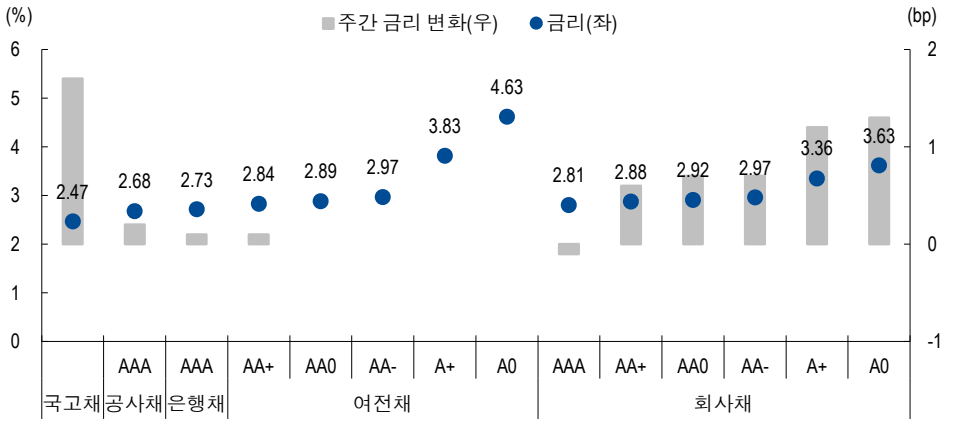
신용평가사들의 상반기 신용평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우호적인 업황 내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전망) 하향이 나타났다. 석유화학, 건설, 2차전지, 부동산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롯데 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롯데지주와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조정됐다. 비우호적인 업황 내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이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기업 간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주: 3년물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국내 크레딧 금리 및 주간 변화



주: 3년물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 국내 크레딧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구분	시장금리(%)				주간 금리 변동(bp)				연간 금리 변동(bp)			
	1Y	3Y	5Y	10Y	1Y	3Y	5Y	10Y	1Y	3Y	5Y	10Y
국고채	2.31	2.47	2.63	2.83	(1.0)	1.7	3.5	4.8	(39.1)	(12.4)	(14.0)	(3.8)
통안증권	2.31	2.50	-	-	7.5	0.6	-	-	(39.0)	(24.4)	-	-
공사채 AAA	2.45	2.68	2.79	3.03	(2.7)	0.2	2.9	4.8	(58.2)	(22.7)	(25.3)	(8.1)
공사채 (정부보증)	2.38	2.60	2.74	2.96	(2.6)	1.1	3.0	4.7	(57.0)	(21.5)	(22.7)	(8.7)
공사채 AA+	2.49	2.78	2.91	3.22	(2.7)	0.2	3.0	4.8	(58.7)	(22.0)	(25.5)	(8.2)
은행채 AAA(산금)	2.48	2.61	2.80	3.27	(4.3)	0.1	2.9	4.8	(50.9)	(21.6)	(18.5)	(8.8)
은행채 AAA(중금)	2.48	2.61	2.80	3.30	(4.3)	0.1	2.8	4.8	(50.9)	(21.5)	(18.5)	(8.8)
은행채 AAA	2.51	2.73	2.89	3.37	(4.6)	0.1	2.8	4.8	(51.8)	(21.9)	(19.9)	(9.6)
여전채 AA+	2.58	2.84	3.01	4.22	(2.3)	0.1	3.1	4.7	(65.5)	(34.1)	(21.3)	(4.4)
여전채 AA0	2.59	2.89	3.21	4.39	(2.3)	0.0	2.9	4.6	(66.0)	(34.3)	(21.0)	(4.7)
여전채 AA-	2.65	2.97	3.31	4.61	(2.3)	0.0	3.0	4.6	(67.9)	(36.5)	(21.8)	(4.8)
여전채 A+	3.26	3.83	4.46	5.31	(3.0)	0.0	2.9	4.6	(74.2)	(37.7)	(19.7)	(4.5)
여전채 A0	3.99	4.63	5.11	5.73	(3.0)	0.0	3.0	4.6	(74.5)	(37.5)	(19.7)	(4.5)
여전채 A-	4.56	5.30	5.77	6.38	(2.9)	0.0	3.0	4.6	(74.1)	(38.2)	(19.8)	(4.5)
회사채 AAA	2.54	2.81	2.98	3.40	(2.9)	(0.1)	3.2	4.7	(59.3)	(31.2)	(22.6)	(9.6)
회사채 AA+	2.58	2.88	3.05	3.69	(2.7)	0.6	3.2	4.9	(59.3)	(32.4)	(25.0)	(9.6)
회사채 AA0	2.61	2.92	3.11	4.03	(2.7)	0.7	3.2	4.8	(59.2)	(31.9)	(24.6)	(9.6)
회사채 AA-	2.64	2.97	3.22	4.39	(2.7)	0.7	3.2	4.9	(58.9)	(31.5)	(24.6)	(9.6)
회사채 A+	2.83	3.36	3.92	4.97	(3.5)	1.2	3.5	4.9	(59.2)	(22.6)	(21.0)	(8.7)
회사채 A0	2.98	3.63	4.35	5.43	(3.4)	1.3	3.5	4.8	(59.1)	(21.5)	(20.3)	(8.5)
회사채 A-	3.26	4.07	4.94	5.94	(3.5)	1.3	3.4	4.8	(58.6)	(21.0)	(20.3)	(8.5)
회사채 BBB+	4.38	6.38	6.83	7.42	(3.6)	1.3	3.4	4.9	(59.6)	(25.3)	(23.7)	(12.4)

구분	크레딧 스프레드(bp)				주간 스프레드 변동(bp)				연간 스프레드 변동(bp)			
	1Y	3Y	5Y	10Y	1Y	3Y	5Y	10Y	1Y	3Y	5Y	10Y
통안증권	(0.5)	2.9	-	-	8.5	(1.1)	-	-	0.1	(12.0)	-	-
공사채 AAA	13.7	21.2	16.8	19.6	(1.7)	(1.5)	(0.6)	0.0	(19.1)	(10.3)	(11.3)	(4.3)
공사채 (정부보증)	6.4	12.3	11.0	12.3	(1.6)	(0.6)	(0.5)	(0.1)	(17.9)	(9.1)	(8.7)	(4.9)
공사채 AA+	18.0	31.0	28.7	38.5	(1.7)	(1.5)	(0.5)	0.0	(19.6)	(9.6)	(11.5)	(4.4)
은행채 AAA(산금)	17.3	13.7	17.2	44.1	(3.3)	(1.6)	(0.6)	0.0	(11.8)	(9.2)	(4.5)	(5.0)
은행채 AAA(중금)	17.3	13.8	17.7	46.8	(3.3)	(1.6)	(0.7)	0.0	(11.8)	(9.1)	(4.5)	(5.0)
은행채 AAA	20.3	25.3	26.5	53.5	(3.6)	(1.6)	(0.7)	0.0	(12.7)	(9.5)	(5.9)	(5.8)
여전채 AA+	26.7	36.5	38.5	138.7	(1.3)	(1.6)	(0.4)	(0.1)	(26.4)	(21.7)	(7.3)	(0.6)
여전채 AA0	28.1	42.0	58.4	155.8	(1.3)	(1.7)	(0.6)	(0.2)	(26.9)	(21.9)	(7.0)	(0.9)
여전채 AA-	34.0	50.0	68.4	178.1	(1.3)	(1.7)	(0.5)	(0.2)	(28.8)	(24.1)	(7.8)	(1.0)
여전채 A+	95.0	135.3	183.0	247.8	(2.0)	(1.7)	(0.6)	(0.2)	(35.1)	(25.3)	(5.7)	(0.7)
여전채 A0	167.5	215.3	248.8	289.9	(2.0)	(1.7)	(0.5)	(0.2)	(35.4)	(25.1)	(5.7)	(0.7)
여전채 A-	224.4	282.7	314.8	355.0	(1.9)	(1.7)	(0.5)	(0.2)	(35.0)	(25.8)	(5.8)	(0.7)
회사채 AAA	23.1	33.7	35.1	56.5	(1.9)	(1.8)	(0.3)	(0.1)	(20.2)	(18.8)	(8.6)	(5.8)
회사채 AA+	27.0	41.2	42.2	85.7	(1.7)	(1.1)	(0.3)	0.1	(20.2)	(20.0)	(11.0)	(5.8)
회사채 AA0	29.8	44.3	48.8	119.3	(1.7)	(1.0)	(0.3)	0.0	(20.1)	(19.5)	(10.6)	(5.8)
회사채 AA-	33.0	49.3	59.2	155.6	(1.7)	(1.0)	(0.3)	0.1	(19.8)	(19.1)	(10.6)	(5.8)
회사채 A+	51.5	88.7	129.2	213.2	(2.5)	(0.5)	0.0	0.1	(20.1)	(10.2)	(7.0)	(4.9)
회사채 A0	67.3	115.4	172.4	259.2	(2.4)	(0.4)	0.0	0.0	(20.0)	(9.1)	(6.3)	(4.7)
회사채 A-	94.4	160.1	231.1	310.6	(2.5)	(0.4)	(0.1)	0.0	(19.5)	(8.6)	(6.3)	(4.7)
회사채 BBB+	206.6	391.0	420.1	458.7	(2.6)	(0.4)	(0.1)	0.1	(20.5)	(12.9)	(9.7)	(8.6)

주: 2025년 7월 4일 기준, 주간은 2025년 6월 27일 대비, 연간은 2024년말 대비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 해외 크레딧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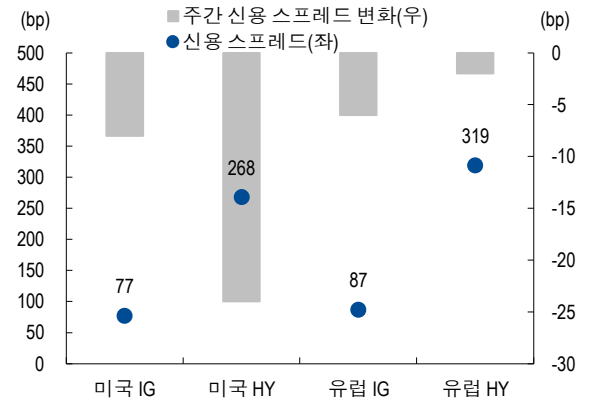
미국: 양호한 미국의 경기 지표

지난주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는 전주 대비 각각 8bp, 24bp 축소되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도 신용 스프레드 축소로 크레딧 금리도 전주 대비 하락하며 지수 기준 양(+)의 투자성과를 기록했다.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 축소 폭이 컸는데, 이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미국의 견조한 6월 고용지표, 서비스업 업황 확장 국면 전환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6월 미국의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4.7만명 증가하며 전월(+14.4만명) 및 예상치(+11만명)를 상회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유럽: 신용 스프레드 축소, 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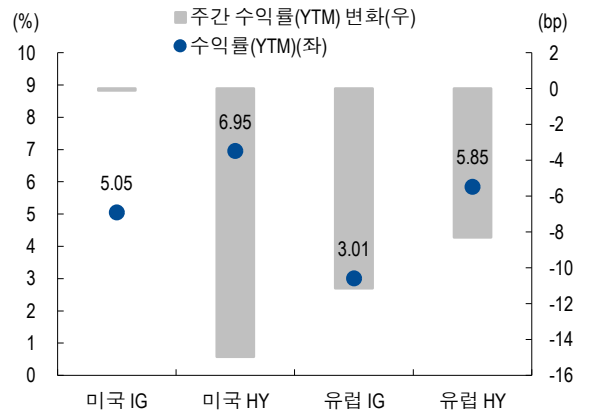
유럽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는 전주 대비 각각 6bp, 2bp 축소 마감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럽 크레딧 금리는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미국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지수 기준 양(+)의 투자 성과를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높았으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지난주 유럽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그림3. 해외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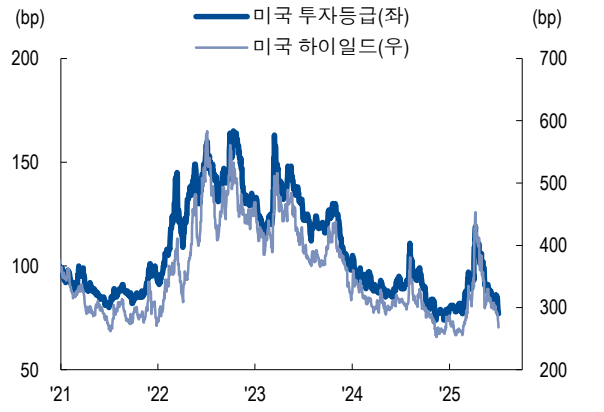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해외 크레딧 수익률(YTM) 및 주간 변화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미국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유럽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Ⅱ. 크레딧 시장 이슈

II. 크레딧 시장 이슈: 부동산PF 연착륙 시도는 현재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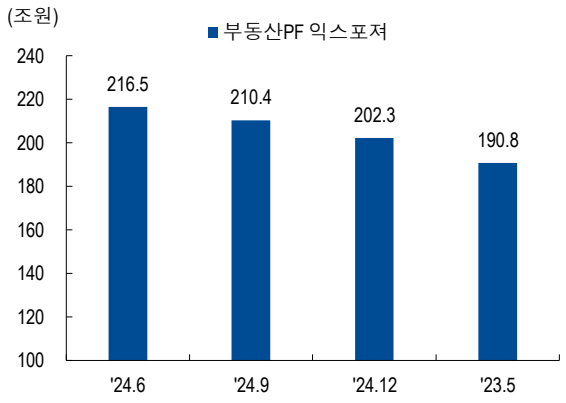
부동산PF 사업성 4차 평가결과 발표

부동산PF 4차 사업성 평가결과가 발표됐으며, 질서 있는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사업성 평가부터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함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2025년 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은 190.8조원으로 2024년말(202.3조원) 대비 약 11.5조원 감소했다. 전체 금융업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는 감소했다.

정리 및 재구조화는 다소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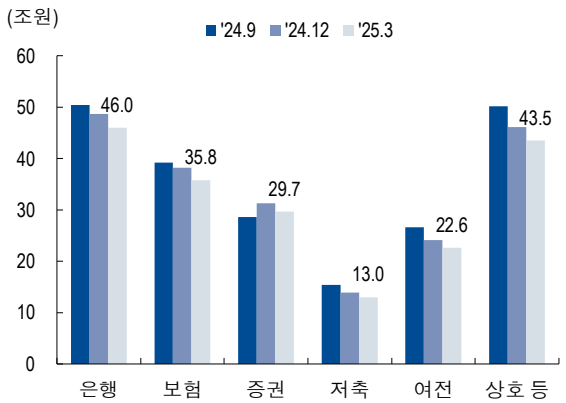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리와 재구조화 작업은 다소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2차 사업성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중 약 52.7%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3월말까지는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중 약 38.1%가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을 통해 6.5조원(대상 중 42.5%)이 정리되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2.6조원(대상 중 30.2%)이 재구조화되었다.

그림7. 부동산PF 익스포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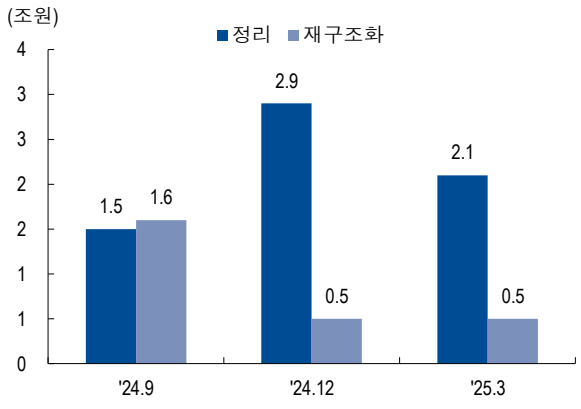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금융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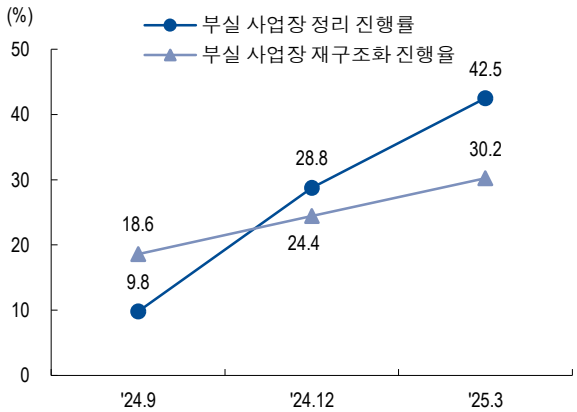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부동산PF 구조조정 대상 정리·재구조화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부동산PF 구조조정 대상 정리·재구조화 진행률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1분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증가하며 경계감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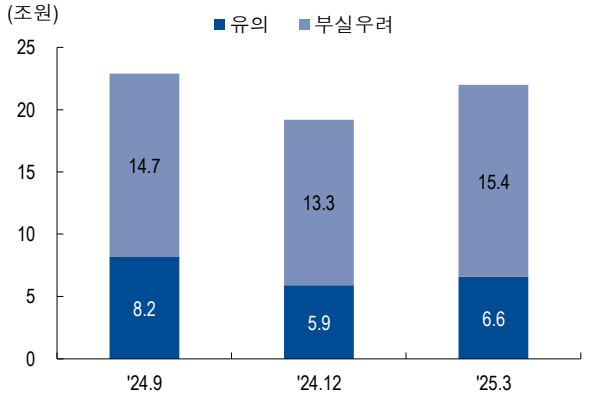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부동산PF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이 2024년말 대비 증가하는 등 부동산PF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고 있다. 2025년 3월말 기준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은 21.9조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약 11.5% 수준이다. 2024년말 대비 금액이 증가(19.2조원 → 21.9조원)했으며,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져 대비 비중도 확대(9.5% → 11.5%)되었다. 2025년 3월말 기준 유의로 분류된 여신은 6.6조원으로 2024년말 대비 0.7조원 증가했고, 부실우려로 분류된 여신은 15.4조원으로 같은 기간 2.1조원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 저하, 충당금 적립으로 대응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업권이 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트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전체 사업장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신규 연체 발생 등으로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말 10.33%에서 2025년 3월말 12.33%로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규모가 11.5조원 줄어든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은 약 2.6조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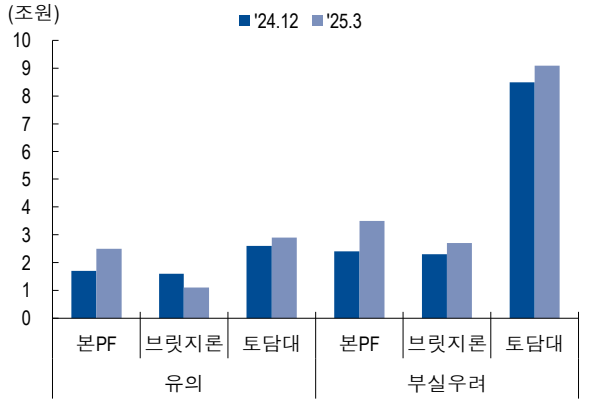
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했지만,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 증가 폭이 약 2.2조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과 보험의 낮은 고정이하여신비율,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감안할 때 부동산PF 관련 우려가 재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과 보험의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17%, 1.89%로 2024년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각각 297.3%, 162.6%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1.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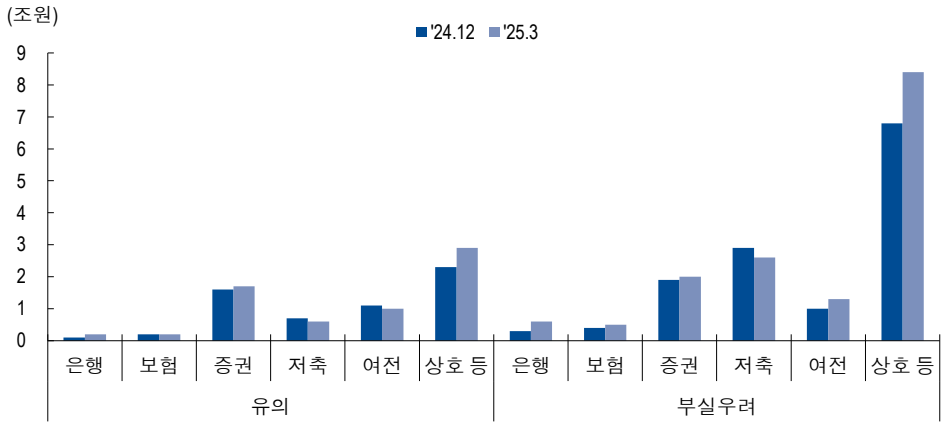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유형별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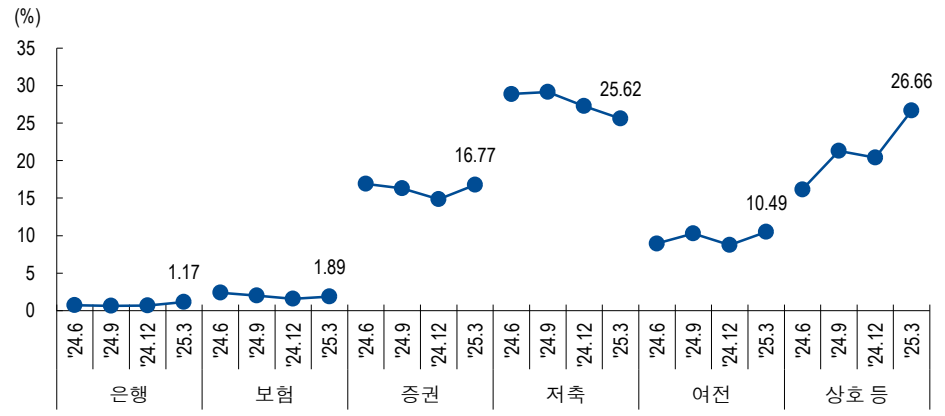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금융업권별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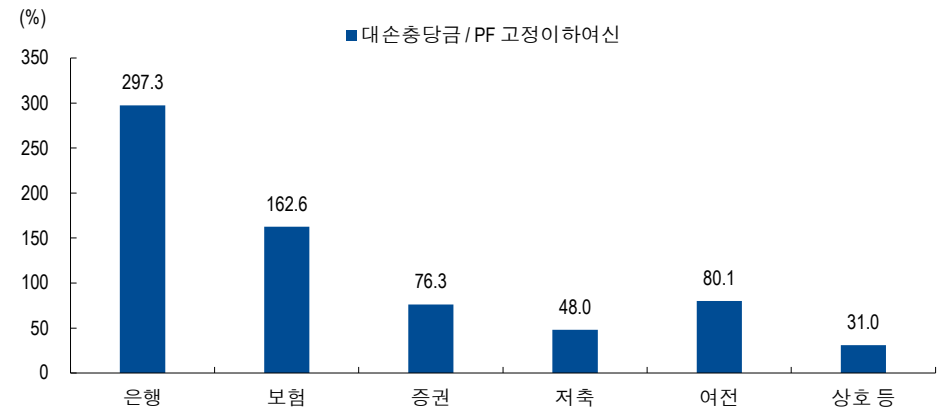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금융업권별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금융업권별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 현황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책 지원은 부동산PF 연착륙에 우호적인 요인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은 시장 안정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용도별, 제2금융권 및 중소형건설사에 대한 양극화 심화되는 부분을 일부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2차 추경을 통해 자금공급 취약분야(신규 브릿지론, 제2금융·중소형건설사, 미분양 주택매입)에 5.4조원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계획

한편,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험가중치 및 건전성·충당금 차등, 자기자본요건 추가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한 PF 대출 규제 강화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 실행방안을 2025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PF 시장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CP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PF 관리, 정책 지원, 시장금리 안정화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는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대비 완화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2.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및 연장 여부

업권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연장 조치	연장 기한
공통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25.12월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25.12월말
보험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25.12월말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25.12월말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25.12월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25.12월말
여전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	25년 6월말 종료(정상화)
금융투자	자사보증 PF-ABCP 매입 NCR 위험값 완화	~25.12월말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25.12월말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25.12월말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25.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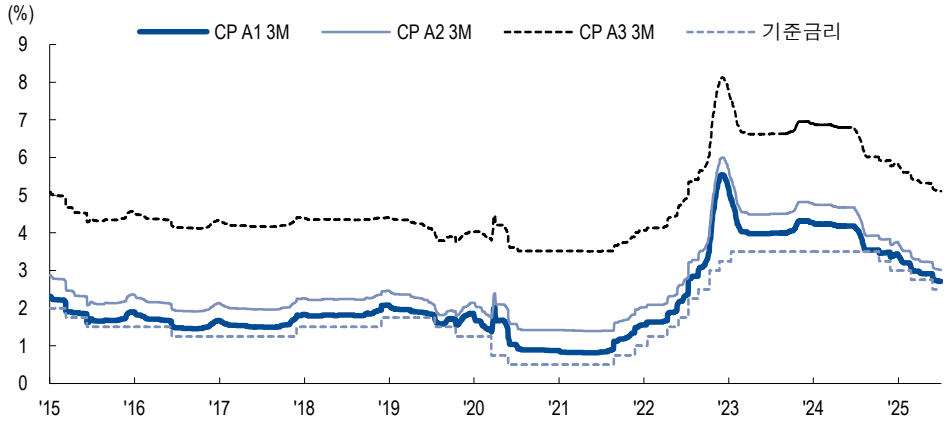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3.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구분	주요 내용	대상
PF사업 자기자본비율 반영 건전성 관리	위험가중치 차등화 -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현재 100, 150% → 개선 100, 130, 150%)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여전
	건전성·충당금 차등화 -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	전 금융업권
	PF대출시 자기자본요건 추가 -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상호, 금고, 여전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건전성규제 정비	(계약형태 무관) NCR에 실제위험값 반영 - NCR 산정 시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및 LTV 등을 기준으로 위험값 적용	증권
	부동산대출 등 위험가중치(예: 10%) 가산	상호
	저축·여전업권 수준으로 충당금 조정	증권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PF한도 정비	PF 거액신용공여한도 규제 도입 - 거액신용공여규제를 운영 중인 은행·보험·저축·상호금융에 도입하고, 여전업권은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한 후 도입	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업권별 부동산(PF) 한도규제 정비	업권별

자료: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국내 기준금리 및 등급별 CP 금리 추이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I. Appendix

1. 국내 크레딧 주요 지표
2. 해외 크레딧 주요 지표

I. 국내 크레딧 주요 지표

1) 신용등급 변동 현황

신용등급 상향: 현대로템

지난주 NICE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철도사업의 우수한 내수시장 지위 및 K2전차 수출에 따른 방산부문 확대 등 다변화된 사업구조, 폴란드 K2전차 수출 프로젝트의 우수한 채산성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개선 등이 반영됐다. 채산성이 우수한 방산부문의 수출 비중 확대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실적이 유지되고 자체창출현금 확대를 바탕으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되어 신용등급 전망은 '긍정적'이 부여됐다. 현대로템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19%, 3.39%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16%, 3년물 3.36%)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표4. 신용등급 상향 현황

구분	기업	일자	직전	현재	신평사	평정 근거
신용등급 상향	현대로템	25-06-30	A/P	A+/P	NICE	- 철도 및 방산 부문 수주확대로 사업기반 안정성 강화, 확대된 수준의 외형 지속 전망 - 폴란드 K2전차 수출 프로젝트의 우수한 채산성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개선

주1: 'P'는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을 의미
주2: NICE는 NICE신용평가를 의미
자료: NICE신용평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용등급 하향: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쌍용C&E, SK어드밴스드, 효성화학

지난주 신용평가 3사는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은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롯데지주의 신용등급은 'A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조정됐다. 롯데케미칼 잔존 회사채 중 은행권 보증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의 신용등급이 하향됐으며, 업황 부진에 따른 손실 지속, 과잉 공급에 따른 실적 회복 지연, 높아진 재무부담 완화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반영됐다. 롯데지주의 경우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을 반영해 신용등급이 조정됐다. 롯데케미칼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23%, 3.33%로 A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2.88%, 3년물 2.9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롯데지주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24%, 3.40%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16%, 3년물 3.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그룹 지원주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계열지원 가능성이 배제된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의 신용등급도 하향했다. 롯데물산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27%, 3.42%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16%, 3년물 3.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롯데렌탈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15%, 3.30%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16%, 3년물 3.36%)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롯데캐피탈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50%, 3.71%로 2년물은 A+등급 평균 민평금리(3.46%)를 소폭 상회하고 있고, 3년물는 A+등급 평균 민평금리(3.83%)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NICE신용평가는 쌍용씨앤이의 신용등급을 하향(A/부정적 → A-/안정적)했다. 시멘트 사업환경 악화로 영업실적 부담 확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시설투자 관련 자금소요로 재무안정성 저하, 고배당 기조에 따른 재무부담 추가 상승 전망이 반영됐다. 쌍용씨앤이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98%, 4.35%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67%, 3년물 4.0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에스케이어드밴스드와 효성화학의 신용등급도 NICE신용평가에서 하향됐다. 에스케이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효성화학의 신용등급은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조정됐다. 두 기업 모두 비우호적인 업황 속에 손실이 지속되면서 단기간 내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효성화학의 경우 영업현금흐름 적자 지속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이 지연되며 차입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되어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이 부여됐다. 에스케이어드밴스드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6.05%, 6.58%로 BBB+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5.71%, 3년물 6.3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효성화학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7.23%, 7.98%로 BBB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6.65%, 3년물 7.4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표5. 신용등급 하향 현황

구분	기업	일자	직전	현재	신평사	평정 근거
신용등급 하향	롯데케미칼	25-06-30	AA/N	AA-/S	KR	- 계속되는 영업적자로 저하된 재무안정성 회복되지 못함 - 과잉 공급 상태가 지속되며 실적 회복 지연 전망 - 자구 계획에 따른 차입금 축소에도 유의미한 재무안정성 회복은 어려울 것
					KIS	- 석유화학 수급 회복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영업적자 기록 -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확대된 재무부담 완화되지 못함
					NICE	- 업황 침체로 손실 지속, 단기간 내 회복 제한적 전망 - 약화된 영업현금창출력 감안 시 채무상환능력 개선에 상당 시일 소요 전망
	롯데지주	25-06-30	AA-/N	A+/S	KR	-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도 저하 - 높은 자체 재무부담 등으로 통합신용도 대비 낮은 신용등급 부여
					KIS	-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향 - 지주회사로서 구조적 후순위성
					NICE	- 주요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도 하향 조정 - 계열관련 자금 소요 지속되며 자체 재무부담 확대 추세
	롯데물산	25-06-30	AA-/N	A+/S	KIS	- 롯데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되면서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 배제
	롯데렌탈	25-06-30	AA-/↓	A+/S	KIS	- 롯데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되면서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 배제
	롯데캐피탈	25-06-30	AA-/N	A+/S	KIS	- 롯데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되면서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 배제
	쌍용씨앤이	25-06-30	A/N	A-/S	NICE	- 시멘트 사업환경 악화로 영업실적 부담 확대 -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시설투자 관련 자금소요로 재무안정성 저하 - 고배당 기조 지속되며 재무부담 추가 상승 전망
	에스케이 어드밴스드	25-06-30	A-/N	BBB+/S	NICE	- 불리한 수급환경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될 전망 - 현금흐름 적자 누적되며 재무안정성 저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 지속 전망
	효성화학	25-06-30	BBB+/N	BBB/N	NICE	- 비우호적인 산업 환경 아래 손실 지속, 단기간 회복이 제한적일 전망 - 사업부 양도 및 종속회사 지분 유동화로 재무구조 개선되었으나, 잔여 차입금 수준 여전히 자체 영업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

주1: 'S'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N'는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을, '↓'는 신용등급 '하향검토'를 의미
주2: KR은 한국기업평가, KIS는 한국신용평가, NICE는 NICE신용평가를 의미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용등급 전망 하향: 현대해상(후), 동아에스티, SK쉴더스

지난주 한국신용평가는 현대해상 후순위채의 신용등급(A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제도강화 및 금리변동성 확대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부문 이익변동성 확대와 자본비율 관리부담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2025년 3월말 기준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59.4%이다.

NICE신용평가는 동아에스티의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연구개발전문 자회사의 R&D 비용부담 증가로 수익성 저하, 지분투자 관련 자금소요가 지속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 동아에스티의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06%, 3.21%로 A+등급 평균 민평금리(2년물 3.16%, 3년물 3.36%)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에스케이쉴더스의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기대되었던 사업기반 강화 효과가 예상 대비 미흡한 점, 자체 재무부담 확대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효과 등을 상쇄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표6. 신용등급 전망 하향 현황

구분	기업	일자	직전	현재	신평사	평정 근거
신용등급 전망 하향	현대해상 화재보험 (후)	25-06-30	AA+/S	AA+/N	KIS	- 보험부문 이익변동성 확대 - 지급여력비율 관리부담 상승 (2025년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59.4%)
	동아에스티	25-06-30	A+/S	A+/N	NICE	- 연구개발전문 자회사의 R&D 비용부담 증가로 수익성 저하 - CAPEX 부담은 감소, 지분투자 관련 자금소요 지속 - 연구개발 및 지분투자 자금소요 감안 시 단기간 내 차입금 감축 가능성 제한적
	에스케이 쉴더스	25-06-30	A/S	A/N	KR	- 최대주주 변경 이후 기대됐던 사업기반 강화 효과가 예상 대비 미흡 - 자체 재무부담 확대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효과 등을 상쇄 - 최대주주 투자 회수전략에 따른 사업·재무위험 확대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주1: 'S'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N'는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을 의미
주2: KR은 한국기업평가, KIS는 한국신용평가, NICE는 NICE신용평가를 의미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 회사채 수요예측 Review & Preview

표7. 지난주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회사채 종목	등급	만기	발행액 (단위: 억원)	수요예측 참여액 (단위: 억원)	수요예측일	발행예정일	자금의 사용목적
넥센타이어 63-1	A/S	2Y	500	2,500	25-07-01	25-07-08	채무상환자금
넥센타이어 63-2		3Y	1,450	4,300			채무상환자금
한화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리츠) 2-1 (담보부)	AA-/S	2Y	600	1,650	25-07-02	25-07-09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한화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리츠) 2-2 (담보부)		3Y	500	1,350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울산GPS 4-1 (SK가스 지급보증)	AA-/S	2Y	400	2,800	25-07-02	25-07-09	채무상환자금
울산GPS 4-2 (SK가스 지급보증)		3Y	800	3,000			채무상환자금
하나캐피탈 460(신종)	A/S	30NC5	1,500	2,150	25-07-03	25-07-11	운영자금
신한투자증권 2507-1	AA/S	2Y	1,000	5,000	25-07-03	25-07-14	채무상환자금
신한투자증권 2507-2		3Y	2,000	8,900			채무상환자금

주1: 'S'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을 의미
주2: 하나캐피탈(신종)은 30년 만기로 발행되나, 발행회사가 5년 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주3: 하나캐피탈(신종)과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조건 미확정 상태이며, 수요예측 참여액은 언론보도 기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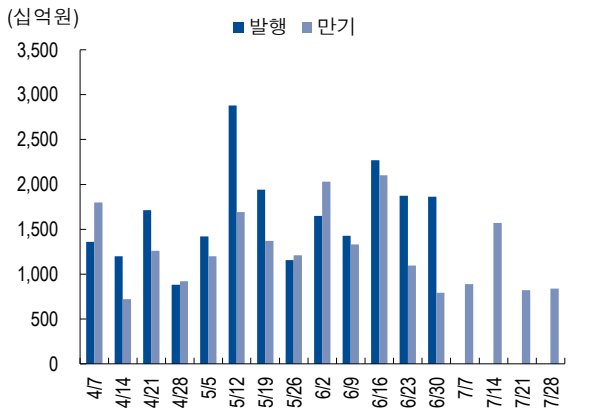
표8. 이번주 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주요 기업

회사	등급	만기	발행예정액 (단위: 억원)	수요 예측일	발행 예정일	등급 민평금리	개별 민평금리	등급민평 스프레드	개별민평 스프레드
HD현대	A+/S	3Y	700	25-07-08	25-07-16	3.359	3.146	88.7	67.4
		5Y	700			3.917	3.660	129.2	103.5
		7Y	100			4.145	3.910	137.5	114.0
CJ CGV	A-/P	1.5Y	500	25-07-11 or 25-07-14	25-07-21	3.508	4.949	115.3	259.4
		2Y	500			3.669	5.099	122.2	265.2

주1: 금리는 %, 스프레드는 bp이며, 2025년 7월 4일 기준
주2: 'S'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P'는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을 의미
자료: 본드웹, 인포맥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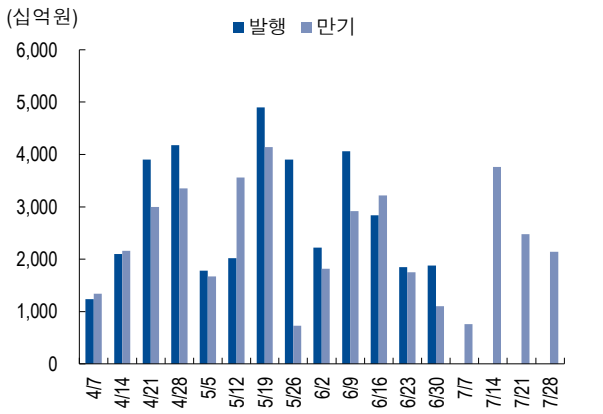
3) 국내 크레딧 주간 발행 추이

그림17. 주간 공사채 발행, 만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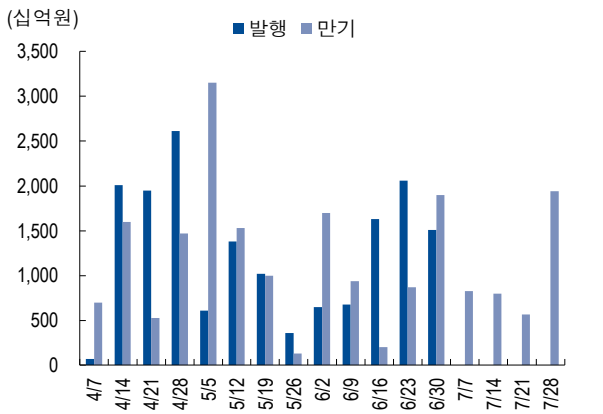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주간 특수은행채 발행, 만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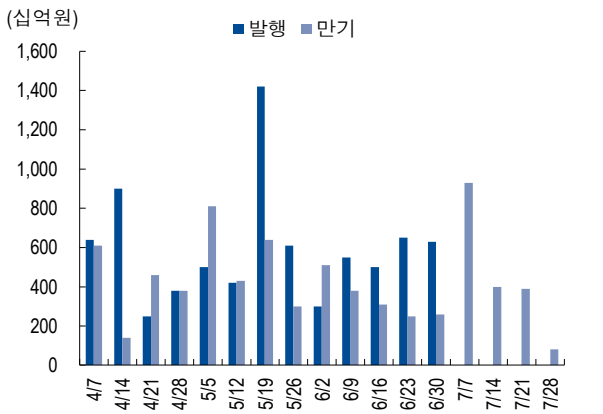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주간 일반은행채 발행, 만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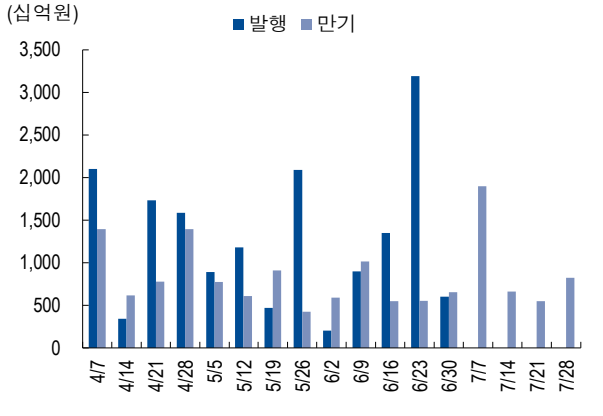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주간 카드채 발행, 만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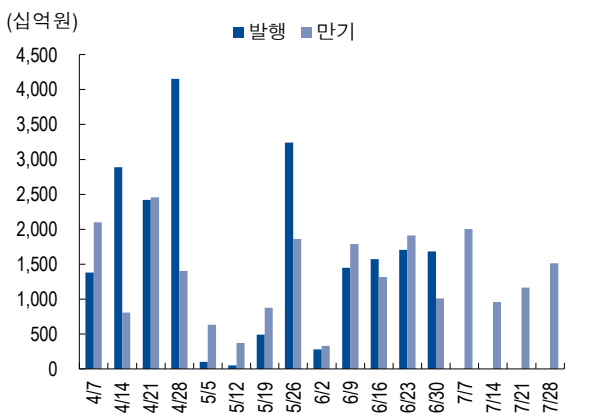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1. 주간 캐피탈채 발행, 만기 추이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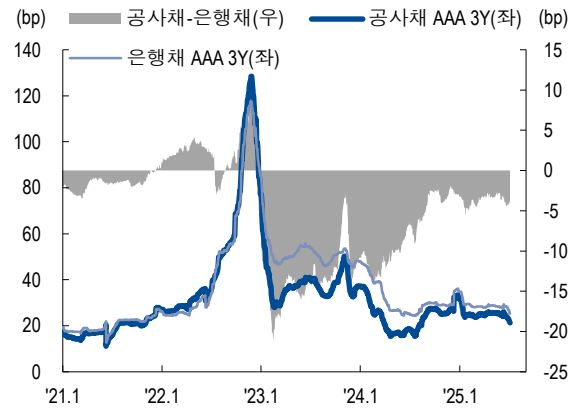
그림22. 주간 회사채 발행, 만기 추이



자료: 본드웹,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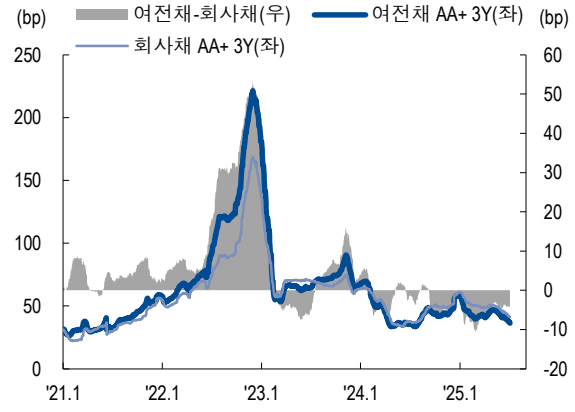
4) 국내 크레딧 등급별/섹터별/만기별 지표 추이

그림23. AAA등급 크레딧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4. AA+등급 크레딧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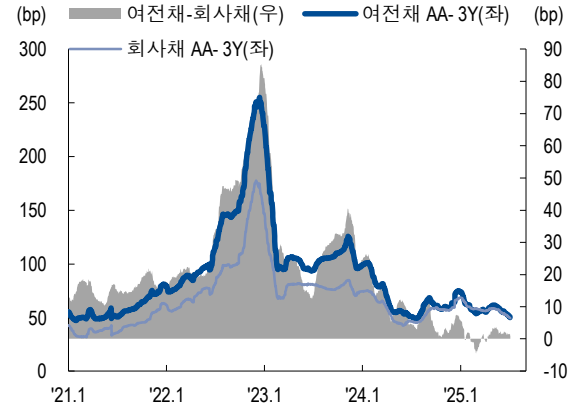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5. AA등급 크레딧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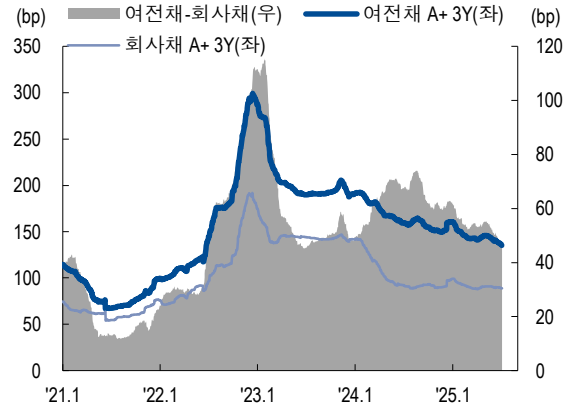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AA-등급 크레딧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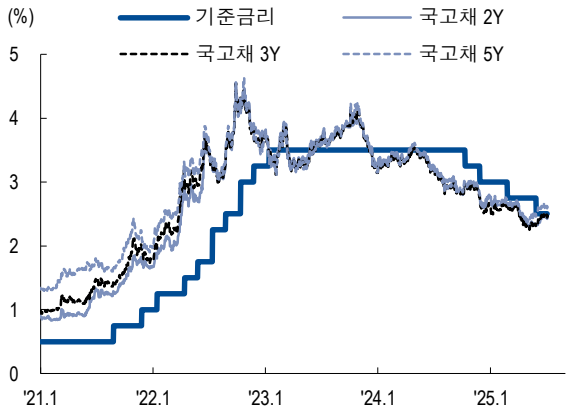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7. A+등급 크레딧물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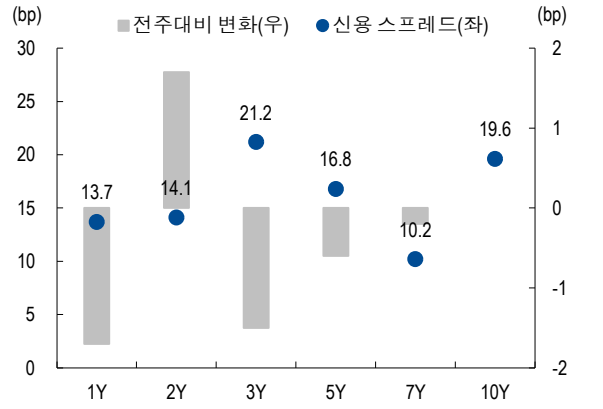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8.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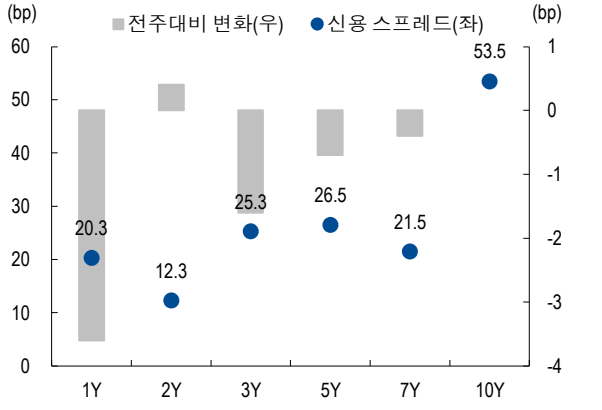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공사채 A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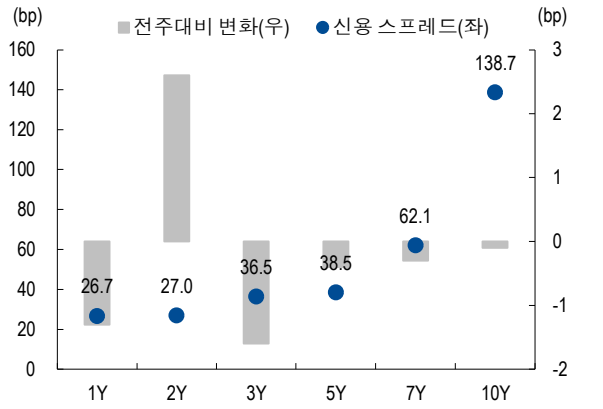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은행채 A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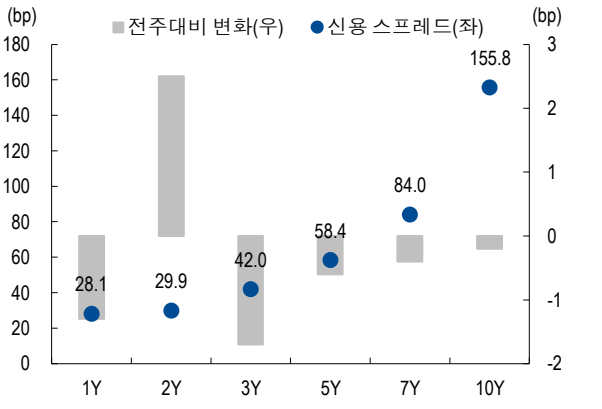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1.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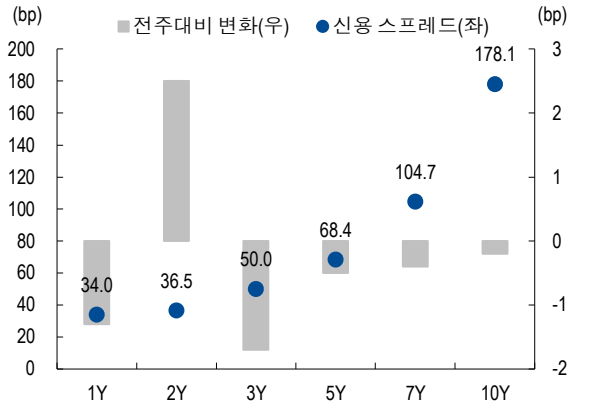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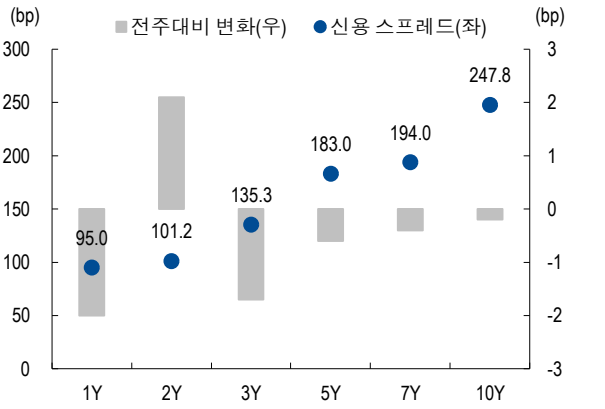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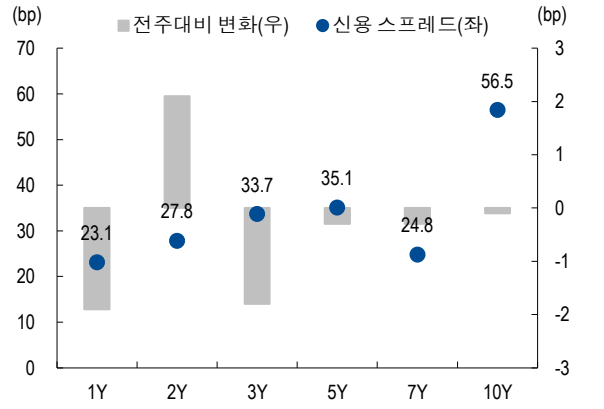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4. 여전채 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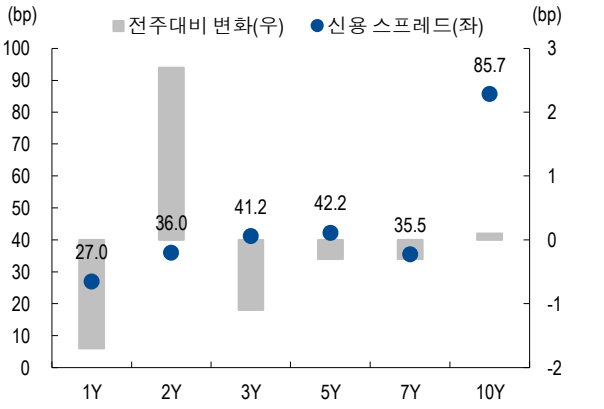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회사채 A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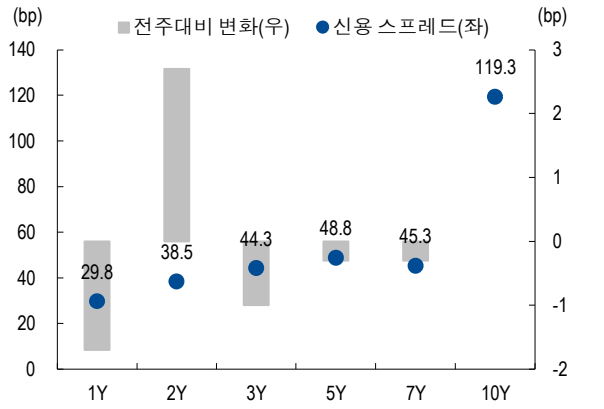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6.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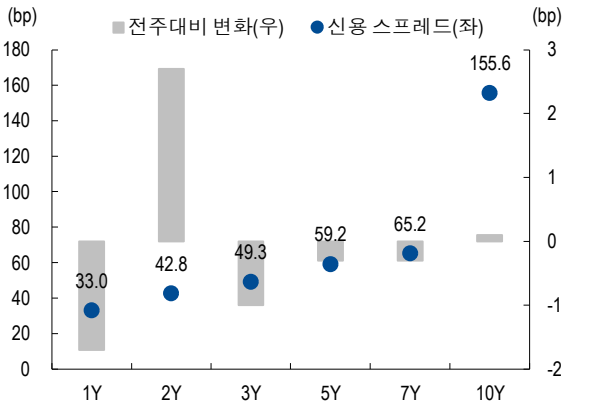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7.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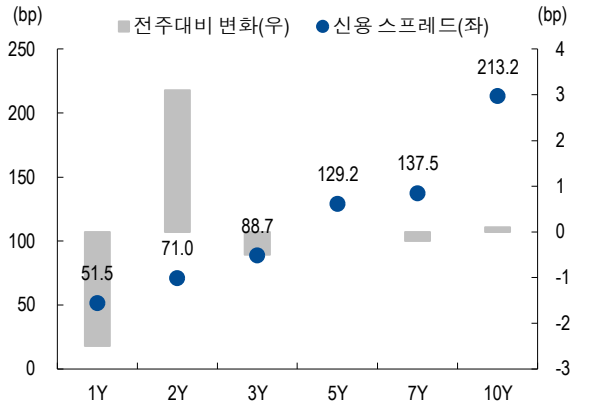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8.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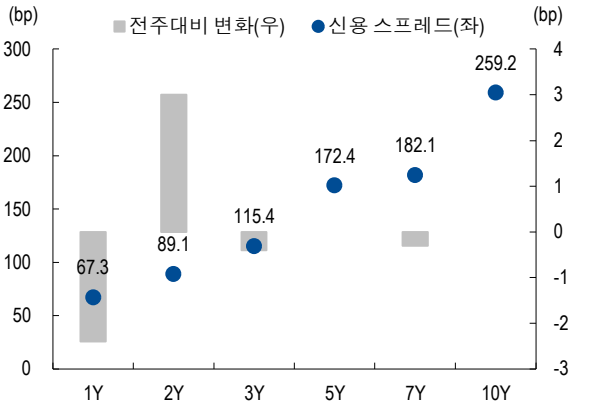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9. 회사채 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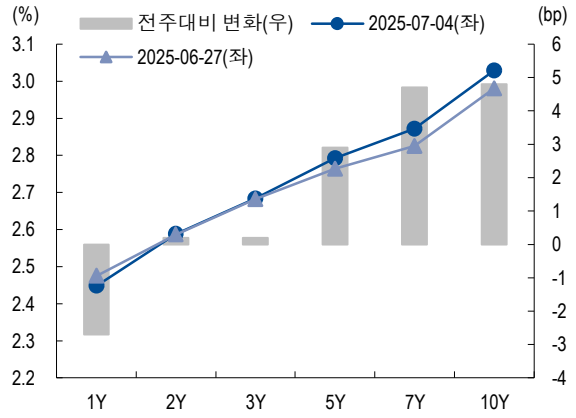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0. 회사채 A등급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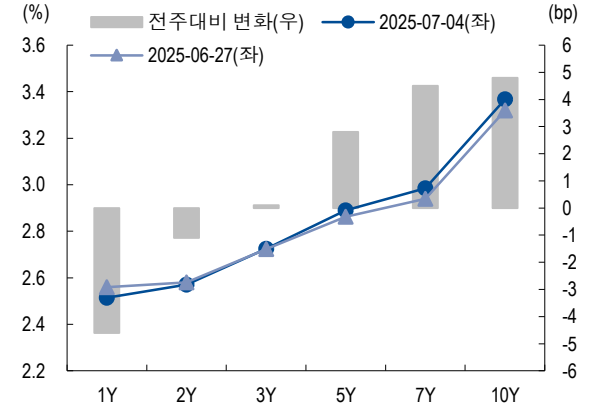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1. 공사채 A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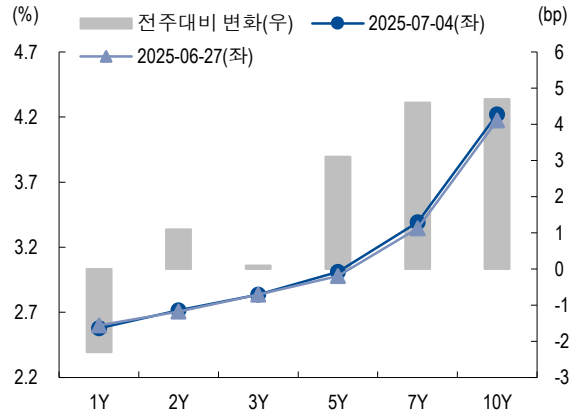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2. 은행채 A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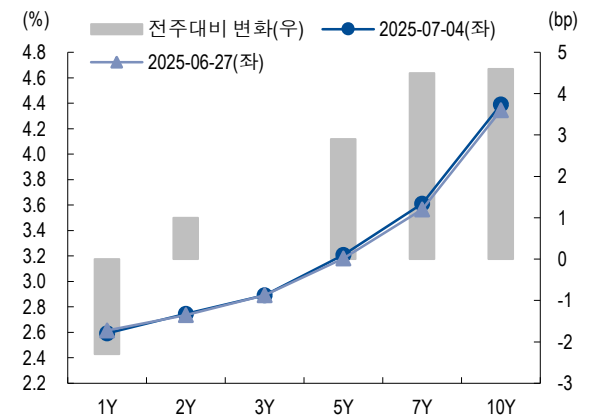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3.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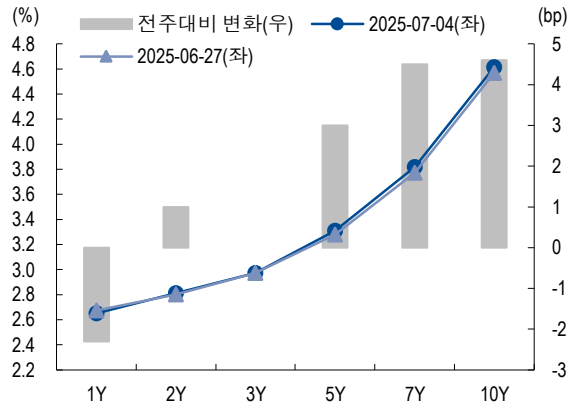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4.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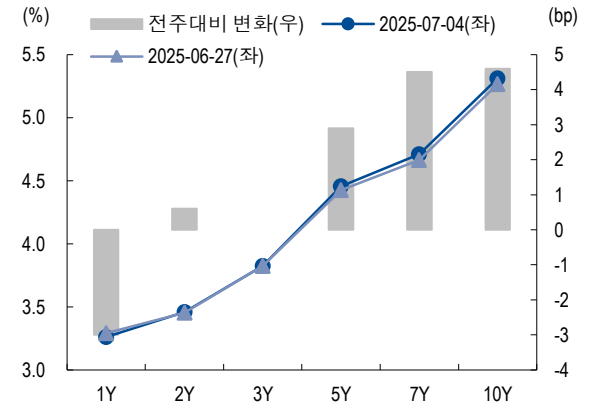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5. 여전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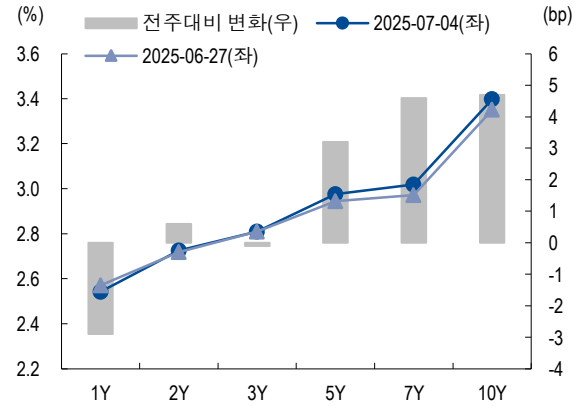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6. 여전채 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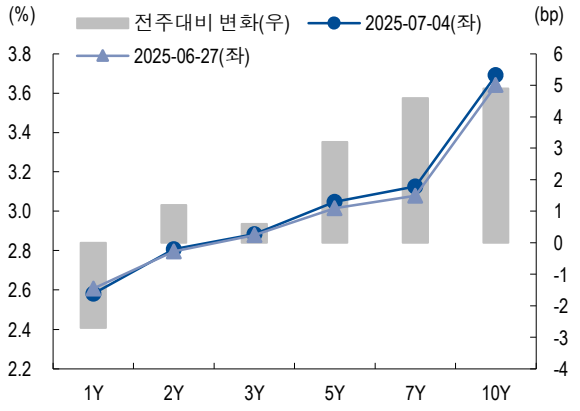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7. 회사채 A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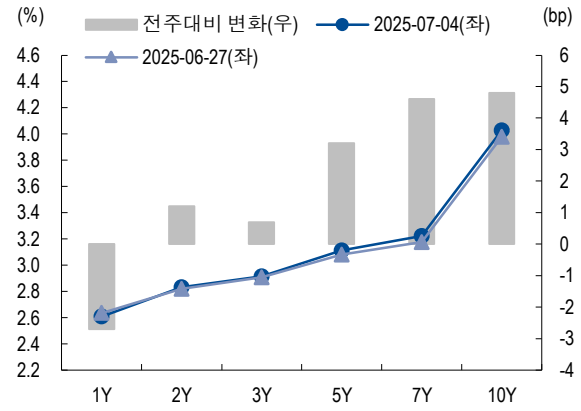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8.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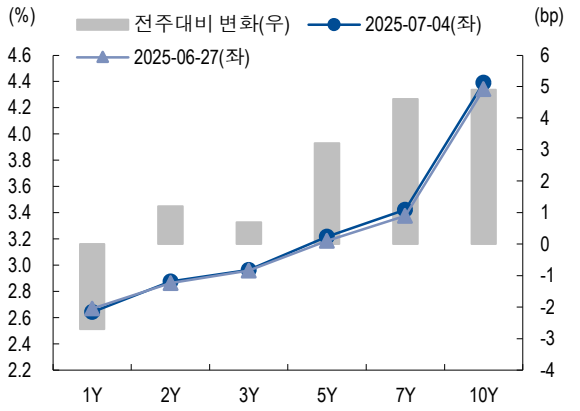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9.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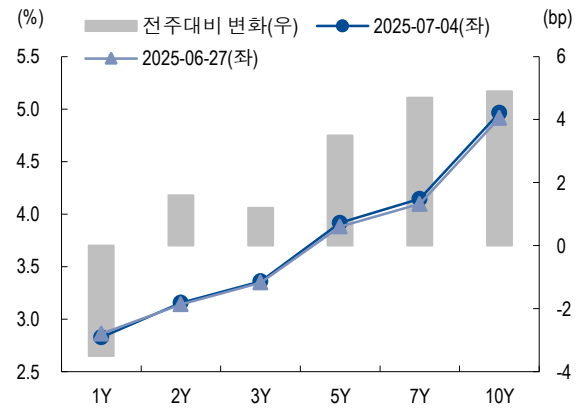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0. 회사채 A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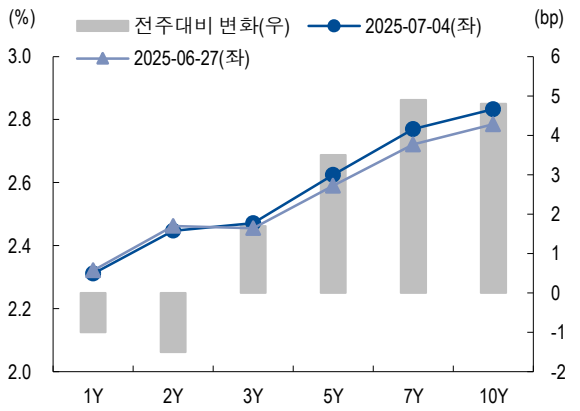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1. 회사채 A+등급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2. 국고채 만기별 금리 및 주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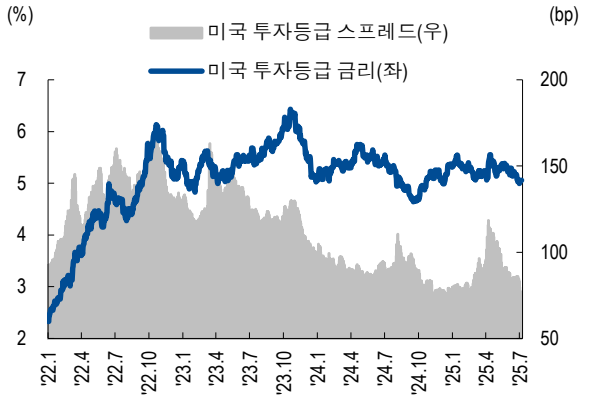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 해외 크레딧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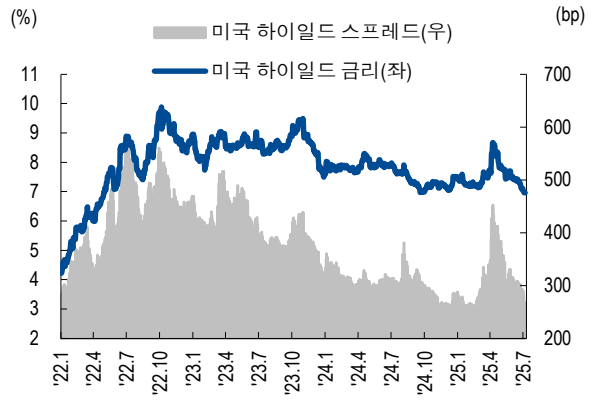
1) 지역별 신용 스프레드 및 수익률(YTM) 추이

그림53. 미국 투자등급 수익률(YTM) 및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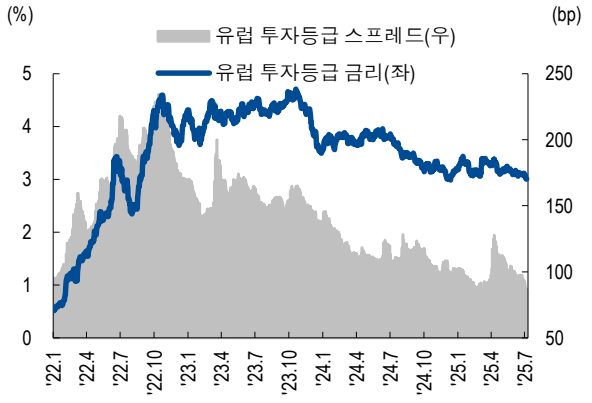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4. 미국 하이일드 수익률(YTM) 및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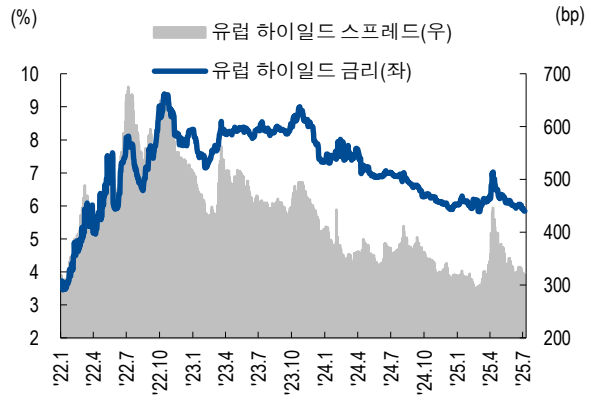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5. 유럽 투자등급 수익률(YTM) 및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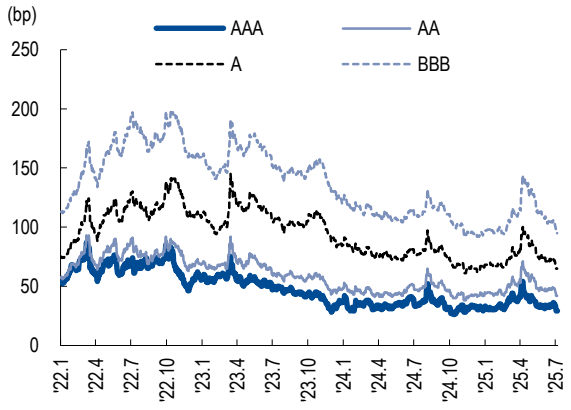
그림56. 유럽 하이일드 수익률(YTM) 및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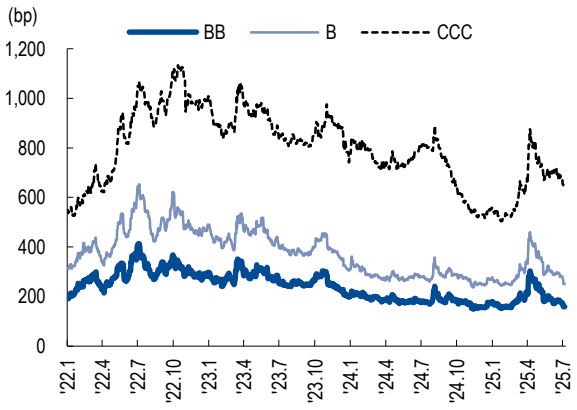
2) 섹터별/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변화 및 주간 투자성과

그림57. 미국 투자등급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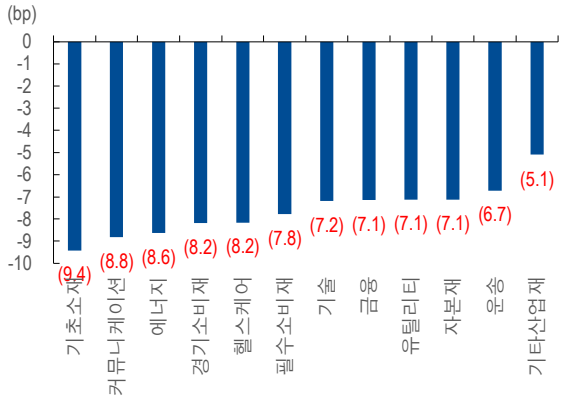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8. 미국 하이일드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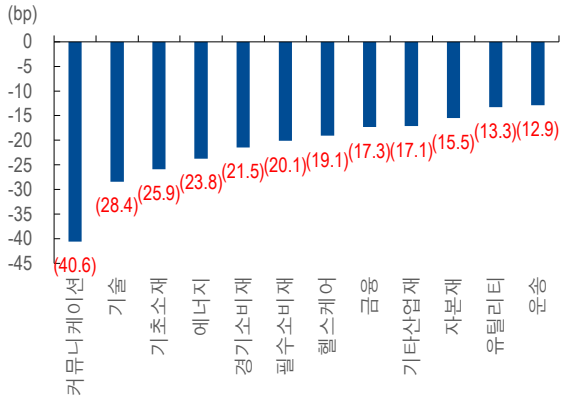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9. 미국 투자등급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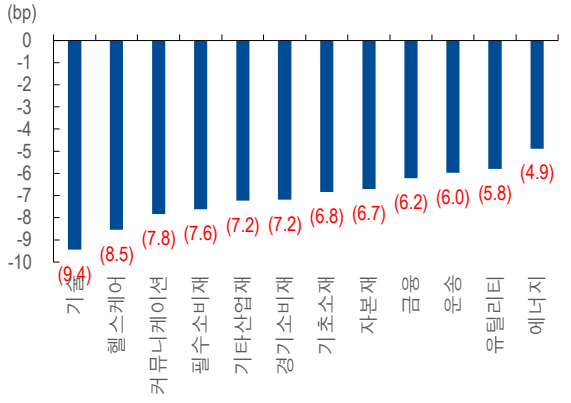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0. 미국 하이일드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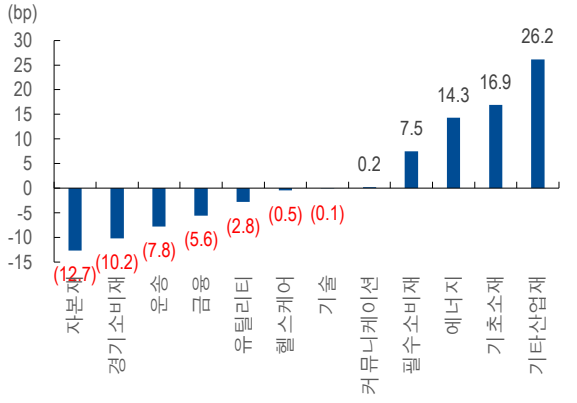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1. 유럽 투자등급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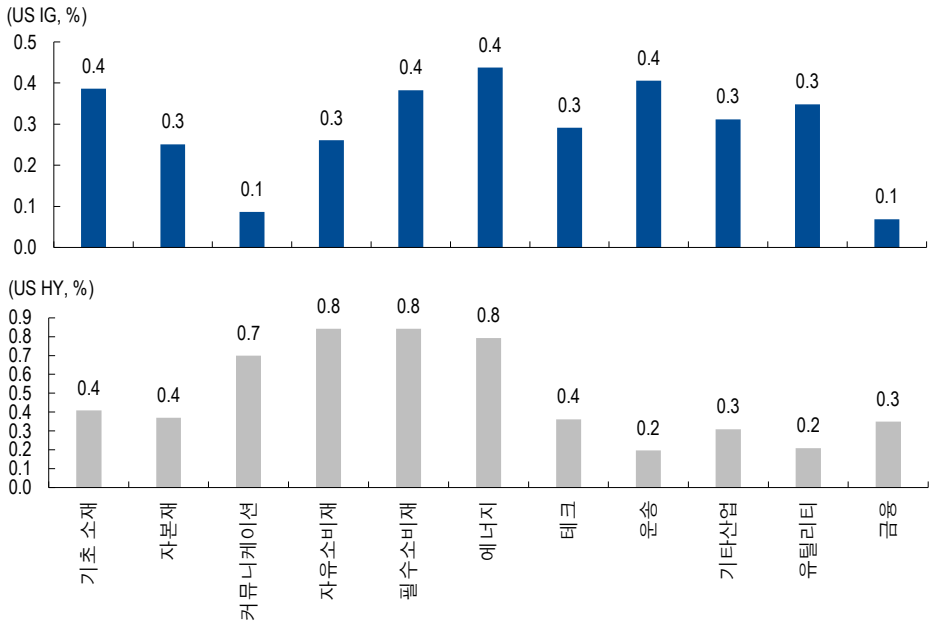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2. 유럽 하이일드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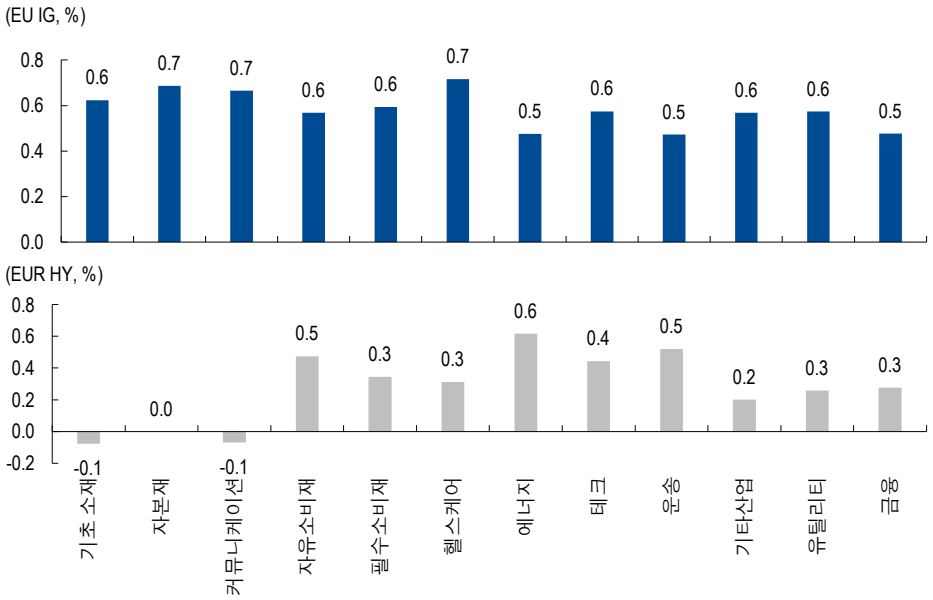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3. 미국 크레딧 산업별 주간 투자성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4. 유럽 크레딧 산업별 주간 투자성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3) 해외 주요 기업 신용등급 변동

표9. 해외 주요 기업 신용등급 변동 내역

일자	기업명	이전	변동	신평사	평정 근거
25-07-01	Huntsman Corporation	Baa3/N	Ba1/N	Moody's	화학 부문 침체로 3년간 실적 감소, 향후 2년간 레버리지 증가와 재무 개선 제한될 전망
25-07-01	Viper Energy, Inc.	Ba2/S	Ba1/S	Moody's	높은 마진과 잉여현금창출능력, 보수적 재무정책
25-07-02	Oracle Corp.	BBB/S	BBB/N	S&P	2025년 설비투자가 기존 가이던스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현금흐름은 부진
25-07-02	Bunge Global S.A.	BBB+/ W Pos	A-/S	S&P	Viterra와 인수합병 완료, 조정 레버리지 2.3배 수준에서 2년 후 2배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25-07-03	Commerzbank AG.	A2/P	A1/S	Moody's	자본금 확충 및 수익성 개선 등 은행 펀더멘털 개선

주: 'S'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P'는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N'는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R Up', 'W Pos'는 신용등급 상향검토, 'R Down', 'W Neg'는 신용등급 하향검토를 의미

자료: Moody's, S&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NH투자증권 크레딧 정기 자료 발간 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25-03-04	Weekly	최성종, 김준수	가계부채 관리와 은행채 발행
2025-03-04	Indepth	김준수	[해외 크레딧 인사이트] 유럽은행 코코본드: 7%의 엣지
2025-03-10	Weekly	최성종, 김준수	S&P, 국내 기업 신용등급(전망) 하향
2025-03-17	Weekly	최성종, 김준수	올해도 공사채 수급에 Key는 한전채
2025-03-26	Indepth	전병하, 김준수	[FICC Collaboratio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숨겨진 뇌관들: 글로벌 리스크 심층 점검
2025-04-03	Quarterly	최성종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현재 진행형
2025-04-07	Monthly	김준수	Hold on Tight
2025-04-14	Weekly	최성종, 김준수	캐피탈사 부동산PF 관리 모드, 신용등급에 우호적
2025-04-21	Weekly	최성종, 김준수	더욱 높아지는 코코본드 절대금리 매력
2025-04-28	Weekly	최성종, 김준수	일반은행채 순발행 급증 가능성 제한적
2025-05-12	Weekly	최성종, 김준수	5월 우호적인 크레딧 수급 전망
2025-05-19	Weekly	최성종, 김준수	롯데카드(AA-/S), 카드사 재편의 Key
2025-05-28	Indepth	최성종	[2025 하반기 FICC 전망/크레딧(국내)] 캐리 속 밸런스 잡기
2025-05-28	Indepth	김준수	[2025 하반기 FICC 전망/크레딧(해외)] 체리 피킹의 시간
2025-06-09	Weekly	최성종, 김준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은행채 발행
2025-06-16	Weekly	최성종, 김준수	보험사 K-ICS 규제 완화와 크레딧 수급
2025-06-23	Weekly	최성종, 김준수	본격적인 신용등급(전망) 하향 우위
2025-06-30	Weekly	최성종, 김준수	연준 ST: 그 어느때보다 강한 위기 대응 능력
2025-07-02	Monthly	김준수	[해외 크레딧 인사이트] (강등)위기를 (매수)기회로

NH투자증권 크레딧 이슈/Comment/Note 자료 발간 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25-03-05	Comment	최성종, 주영훈	[NH 긴급진단 컬래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의미와 영향
2025-03-13	Comment	정준섭, 최성종	[보험산업 컬래버] 보험사 부담 낮추는 K-ICS 제도 개선
2025-03-14	Comment	김준수	미국 HY 신용 스프레드 급등 코멘트
2025-04-07	Comment	김준수	미국 HY 스프레드, 금융시장의 '불편함' 반영 중
2025-04-17	Comment	김준수	美 6대 은행 1분기 실적: 극심한 변동성은 달갑지 않다
2025-04-25	Comment	김준수	미국 크레딧 시장 동향: Aftermath
2025-05-08	Comment	최성종	보험사 후순위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우위
2025-05-12	Comment	김준수	유럽 은행 1분기 실적: 무역 긴장 경계감에도 호실적
2025-05-13	Industry Note	윤유동, 최성종	[증권산업/크레딧 컬래버] 벌써 내년 먹거리 준비 중
2025-05-19	Comment	김준수	KP: 대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한국계 외화채(KP)는?
2025-06-05	Comment	김준수	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 급증과 시사점
2025-06-16	Credit Focus	김준수	웰스파고(Wells Fargo & Co.): 성장 리미트 해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 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